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6. 12.(금) 9시

재외동포청, 국내 스타트업 '캐나다 진출' 돕는다

- 토론토서 AI·첨단제조 분야 스타트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
- 한상 네트워크 활용해 현지 투자자·기업과 연결 지원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6월 9일부터 10일(현지시간)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「2026 스타트업 해외진출 투자유치설명회」를 개최했다.
 - 재외동포청은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, 글로벌 한상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「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」을 2024년부터 추진해왔다.
 - 이번 설명회는 재외동포청이 토론토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스타트업 행사로, 토론토가 캐나다 내 혁신 허브이자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을 적극 고려하였다.
- 이번 설명회에는 AI·첨단제조 분야 국내 유망 스타트업 5개사* 가 참가했으며, 재외동포 경제인과 현지 투자자, 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 했다.
 - * [첨단제조] EV&Solution(이브이앤솔루션), [AI] SPOTLITE(스포트라이트), DEEP INSIGHT(딥인사이트), Inventis(인벤티스), KSMC(한국안전관리센터)
 - 행사 기간에는 캐나다 시장 진출 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,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, 기업 개별 미팅 및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됐다.
 -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기업들은 투자상담 총 40건을 진행했으며, 상담액은 1,940만 달러로 집계됐다.

- 김경협 청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“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의 열정에 응원한다”고 전했다.
- 이어, “스타트업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중요한 여정”이라고 강조하며, “재외동포 경제인의 경험과 네트워크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산”이라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.
-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스타트업과 재외동포 경제인을 연결해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,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.

- 붙임 1. 행사 포스터 1부.
- 2. 행사 사진 4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경아 (032-585-3220)
		담당자	주무관 문소희 (032-585-3223)



K 2026 스타트업 해외진출 토론토 프로그램

2026 스타트업 해외진출 (토론토) 지원 사업

CANADA X KOREA

Convergence of Innovation:
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for
Korea-Canada Strategic Partnerships

QR CODE SCA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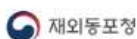


2026.06.09 (Tue) 10 AM - 2 PM

Ontario Investment and Trade Centre
250 Yonge Street, 35F, Toronto

session	Details
Opening & Welcome	VIP Welcoming Remarks
Insight: Why Canada?	'Test-bed' and 'Gateway' to North America Canadian Government Support Programs GTM (Go-To-Market) Roadmap
Success Story & Panel	Case Studies: Success Stories of Market Entry What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Korean startups?
K-Startup IR Pitching	IR Pitching: 5 Global Innovative Startups Feedback from Local Experts and Investors
Networking	Networking & Business Matching

Organized by



Supported by

